사찰승가대학 표준교육과정 시대에 맞게 전면 개편 추진

제8대 교육원장 진우 스님, 2월 16일 신년회견문 발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교육원(원장 진우)이 변화된 승가교육환경에 맞게 사찰승가대학 표준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한다. 교과목을 기존 34개에서 27개로 축소하고 〈대승불교 개론〉·〈신편치문(新編緇門)〉 등 교재를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이 지난해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신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올해 기자회견은 코로나19 유행으로 문건으로 대체됐다. 사진=현대불교 자료사진

주요 필수교재 개발 · 배포 주력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2월 16일 배포한 신년회견문과 사업계획을 통해 "출가인원 감소와 승가의 교육여건이 변화해 표준교육과정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 21세기 승가상 정립에 필요한 핵심적인 교학과 수행을 통해 현대적 불교의 가치관을 확립하고 기본적인 자질을 갖춰 발심과 원력을 세우는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신년회견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문건 배포로 대체됐다.

진우 스님은 사찰승가대학 표준교육과정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교육원은 기존 34개 교과목을 27개로 축소하고 수행실수를 신설해 전통승가교육을 강화했다. 변화된 표준교육과정은 올해 신입 학인부터 적용돼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진우 스님은 "승가 교육여건과 사찰교육 지형은 급격히 변화했다. 10년 전 표준교육과정을 현실에 맞게 개편해 나갈 것"이라며 "다방면의 백과사전적 지식보다는 21세기 승가상 정립에 필요한 핵심적 교학과 수행을 통해 현대적 불교의 가치관을 확립하는 게 주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년별 교육목표를 정하고 이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질 갖춰 발심과 원력을 세우는 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현실 반영한 표준교육 선포

교육과정 개편에 맞춰 교육교재 개발도 박차를 가한다. 지난해 발간을 추진한 〈불교 개론〉에 이어 올해에는 〈대승불교 개론〉·〈신편치문〉 발간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사 · 불교사 · 불교상담 등 표준교과 필수 및 선택 과목에 대한 교육원본(本) 검인정 교과서 지정이 추진되며 신개념 디지털 교재인 스마트메이커 교재 개발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조계종 교육원 신년회견문 발표
표준교과목 34개서 27개로 축소
백과사전식 교육보다 내실 추구
수행실수 신설 불교가치관 확립
'대승불교 개론' 등 교재 발간도

진우 스님은 "사찰승가대학의 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주요 필수교재에 대한 교재 개발에 매진할 것"이라며 "〈대승불교 개론〉을 교육원본으로 편찬해 학인들에게 대승불교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바른 안목을 심어주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글세대 학인들이 한문불전 강독을 효과적 학습할 수 있도록 〈신편치문〉을 시작으로 전통교과목 교재를 새롭게 편찬하겠다"며 "예전처럼 방대한 분량의 치문을 문리가 터질 때까지 배우기란 불가능하다. 핵심적인 편(編)을 선별해 내용을 간결하게 줄이고 문법, 해설 등을 학습하기 편리하게 제공해 한문불전 강독의 참 맛을 느끼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승가 결사체 지원 확대

어린이청소년 및 대학생 포교, 교정교화, 노숙자 복지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포교 · 사회실천활동을 전개 중인 승가결사체 전법교화활동 지원에 내실을 다진다. 지난 2018년 승려연수 인증 및 지원사업으로 시작된 승가결사체는 현재 31곳이 활동할 정도 활성화돼 있다.

진우 스님은 "결사구성원들의 원력이 승가 구성원 각자의 마음과 전법활동으로 스며들어 나와 세상을 평화로 물들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져나가겠다"면서 "모범 사례를 발굴해 널리 홍보하며 격려 · 지원해 승가결사체가 세상의 빛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가 장려 프로그램 지속 개발

이와함께 승가연수교육 인문소양 강화, 행자교육 내실화 등도 올해 주요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교육원은 출가 장려 콘텐츠를 지속 개발해 SNS 홍보를 확대하며 교구 출가지도법사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승가연수교육은 인문사회문화 과정과 선교율 과정 등에서 전문화와 다양화를 모색한다.

진우 스님은 현대 승가교육은 추상적 깨달음이 아닌 중생과 함께 하는 깨달음을 지향해야 함을 강조했다.

스님은 "깨달음은 '귀일심원 요익중생(歸一心源 饒益衆生)'의 삶 속에서 익어간다. 현대사회는 보살만행을 통한 깨달음의 자기 검증이 중요한 덕목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것은 추상적 깨달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타자와 함께 하는 깨달음"이라며 "이 점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서 승가교육 종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탈종교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출가자가 급감하는 현실이지만, 그 고통의 실상을 바로 보고 서로 탁마해 지혜를 모아 극복해낼 때 새로운 희망의 지평이 열릴 것"이라며 "교육원은 이를 위해 정진 또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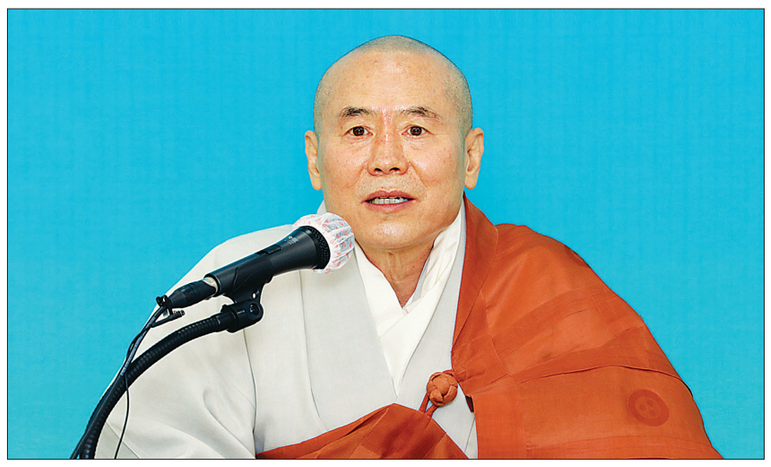
소통통한 종책 과제로 전법포교 스위치 'ON'

제8대 포교원장 범해 스님, 2월 16일 종책발표 기자회견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2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8대 포교원 첫 기자회견을 열고 '전법ON! 제8대 포교원'을 캐치프레이즈로 한 3대 종책기조와 10대 과제를 포함한 전법포교 비전을 공개했다.

이번 비전은 2021년 포교원장 범해 스님 취임 이후 종단 사부대중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바탕한 것이다.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2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 기념관에서 제8대 포교원 첫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순례', 불교 대표 수행으로 확산

첫 번째는 '전법On, 신행중심 포교'로 순례 프로그램으로 수행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상월결사 순례를 시작으로 교계 안팎에 일고 있는 순례와 걷기명상 분위기를 그대로 이끌기 위해 포교원은 교구별 맞춤형 순례코스를 개발한다.

지난해 화엄사와 천은사 등의 순례프로그램을 시범제작한 포교원은 올해에는 본사 4곳과 말사 4곳 등 총 8개 사찰 순례코스를 개발하고 2025년까지 12개의 사찰 연계 순례코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순례 통합정보시스템도 선보인다. 5개년 계획으로 24개 본사 등 총 48개 순례코스가 구성되면 이를 하나의 앱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사찰' 중심 전법 포교로 현장 호응 제고

두 번째는 '전법 플랫폼, 소통하는 전법지원'이다.

전법 플랫폼 기조 변화의 핵심은 '사찰'이다. 그동안 포교원은 각종 종책 개발이 높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포교현장에서 이러한 종책들이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5년간 총 48개 순례코스 개발
순례문화 조성, 수행문화 확산
108전법도량 · 사찰 포교사 등
사찰과 연계한 포교활동 강화
코로나 엔데믹 대비 결집대회

먼저 포교원의 주요 포교인적자원인 '포교사' 제도가 지역 중심에서 사찰 중심으로 변화된다. 포교사단과의 소통을 통해 교구단위 재배치와 포교사 고시 개편 등도 추진된다.

전법중심도량 또한 활성화 된다. 지역별 전법중심도량 미지정 교구에 전략도량을 지정토록 유도하고 포교종책상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현재 62곳인 전법중심도량을 연 10곳 이상 확대 지정, 8대 포교원 기간 총 108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불자' 자부심, 포교 결집으로 높인다

마지막 기조로는 '전법IN, 포교역량 전문화'가 제시됐다. 앞선 전법ON과 전법플랫폼이 불교 대내적인 비전이라면 전법IN은 대외적인 비전의 성격이다. 주요 과제 중 핵심은 '포교원력 결집대회'로 비대면 포교에 매진할 수 없었던 불교계 상황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그동안 모이지 못했던 불자들이 전법과 포교의 원력을 갖는 희망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각분야 포교전략을 구축하기 위해 포교위원회, 신도연구위원회를 활성화 하고, 중앙종무기관, 교구본사, 중앙종회, 포교신도단체가 참여하는 포교전략회의를 개최, 포교진흥위원회 구성을 통한 포교기금 확충도 제시됐다.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전법 현장을 중심으로 지원 방식이 변화해야 할 때"라며 "전법 현장에서 포교인력들의 활약에 따라 포교가 좌우된다. 코로나19로 힘들었던 포교 현장 곳곳에 새로운 활력이 넘쳐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포교 현장 과제 '미래' '소통' 꼽혀

포교종책 설문조사 살펴보니

조계종 포교원은 2022포교종책 발표에 앞서 2021년 7월부터 8월까지 전국 본사 스님들과 포교 신도단체장 등 총 476명을 대상으로 포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포교원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계층 포교 집중대상으로는 청소년(54.2%)과 어린이(45.2%), 청년(42.9%) 등 미래세대가 꼽혔으며, 포교종책 수립에 있어 '현장과의 소통'(63.5%), '최신 트렌드 적용'(30%) 등 현장포교를 반영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포교종책 사업 중에서는 '온라인 콘텐츠 개발'(84.7%)과 '사찰 모바일 앱 개발'(73.3%)이 꼽혀 청년활동가 지원이나 미래세대 포교방안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미래포교를 준비하는 키워드로는 '뉴미디어 포교'(38.8%), 명상 힐링(29.1%), 기도 수행(23.0%), 도심포교(20%) 순으로 꼽혔으며 특히 뉴미디어 포교는 법랍 20년 이하 스님들과 어린이 청소년 단체 활동자, 봉사와 문화 등으로 포교방법을 전개하는 이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았다.

조계종 포교부장 선업 스님은 "포교현장과 소통을 통해 실제로 필요한 종책을 만들고,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2022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옥천범음대학은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고 2009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불교의식, 불교음악, 불교무용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일반인 및 학승을 모집합니다.

교과과정						
학 과		교육내용	요 일	시 간	모집인원	담당교수
1학년	상주권공 Ⅰ	불공 / 시식 / 예불 / 상주권공 및 작법	월	오후1시 ~ 5시	○○	조인각 스님
2학년	상주권공 Ⅱ	시련 / 대령 / 관욕 및 상주권공재의식 시연	수	오후1시 ~ 5시	/	이기봉 스님
3학년	각배	각배 과정	목	오후1시 ~ 5시	편입생 약간명	마일운 스님
4학년	영산	영산 과정	금	오후1시 ~ 5시	/	김태호 스님
불교의식 이론		영산재의 불교예술적 특징	화	오후1시 ~ 4시	/	심만춘 스님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 : · 수 료 과 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 (음악, 무용과) 등 일반인
· 편입학과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 제출서류 : · 수 료 과 정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 전형일정 : 2022년 2월 1일 ~ 2월 28일

▷ 개 강 : 2022년 3월 첫째주 월요일 ※개강 이후 3월중 입학신청 가능

▷ 전 형 료 : 50,000원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교 교학처 전화 접수 및 홈페이지 접수

▷ 특 전 : ①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
②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 혜택 부여, 국내외 공연 시 우선 선발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장 조고담 합장

037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사길 120 Tel 02)392-3234 Fax 02)392-3239 홈페이지 : www.okchunbud.kr/